

진현환 차관 “인공지능(AI) 기술 기반 국토교통 혁신의 길 열겠다”

- 24일 「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 개최」… AI 기반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전 강조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하여,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.
 -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*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 - * GPT 기반 생성형 AI에 증강현실 기능을 접목한 형태로, 인간과 AI 간 협력 가능성 체험
 - 제1회 협의체에는 카이스트(KAIST), 연세대 등 학계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,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인,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AI 로봇 연구소장 등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다.
- 협의체 시작 전,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(Human AI)*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,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.
 - * GPT 기반 생성형 AI에 증강현실 기능을 접목한 형태로, 인간과 AI 간 협력 가능성 체험
- 진 차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AI 기반의 스마트홈,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“주택,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분야인 만큼, 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”이라고 하였으며,
 - 참석한 AI 분야 전문가들은 일상 생활에서 AI 체감도를 높이려면 AI 기술 발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,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이 필요한지 수단으로서의 고민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AI 협의체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.

2024.12.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